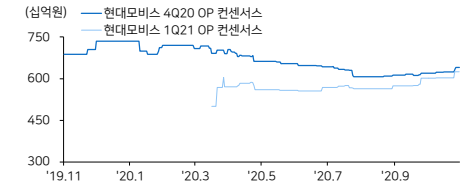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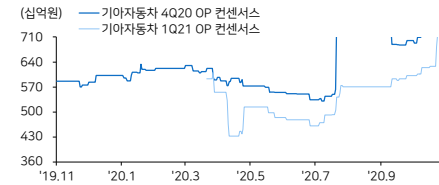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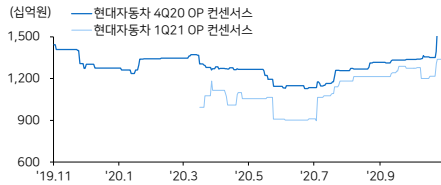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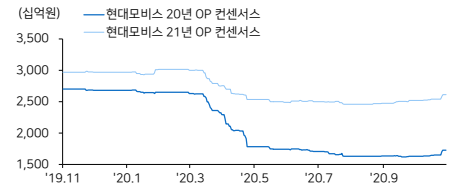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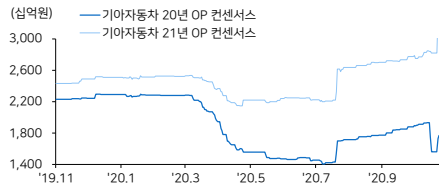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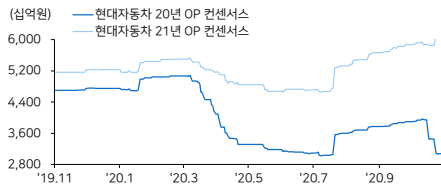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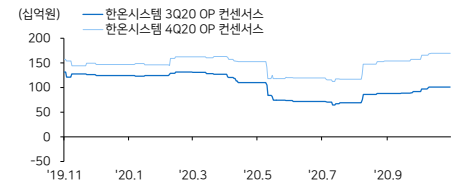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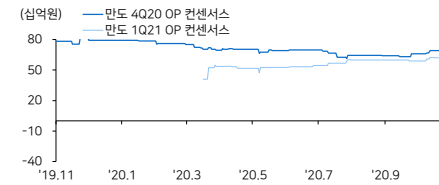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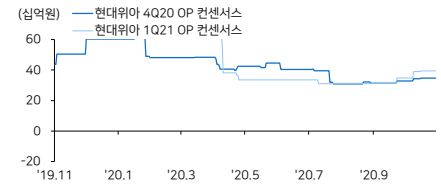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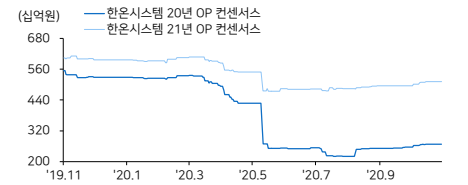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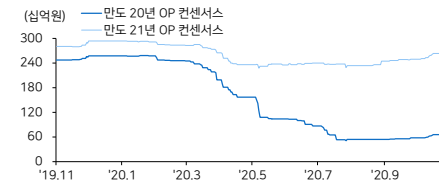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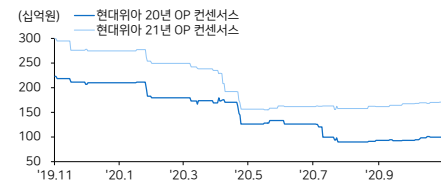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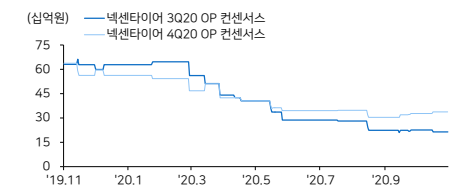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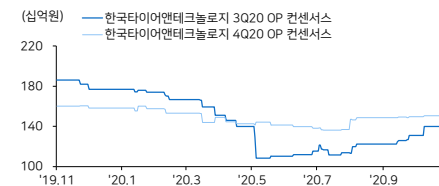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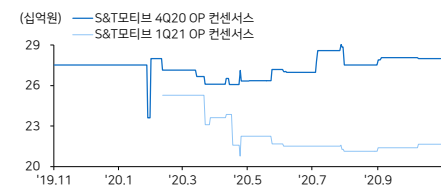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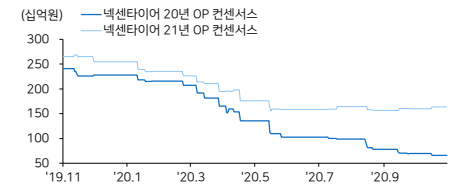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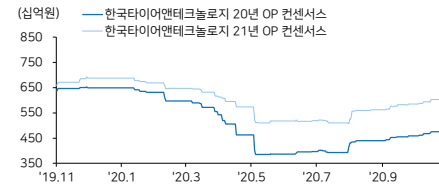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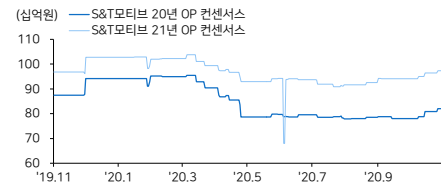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차에 2025년까지 수소전기트럭 4000대 보급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중국에 4000여대 이상의 수소전기트럭을 보급. 현대차는 중국 현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장강 삼각주 지역 및 장진지 지역 파트너사와 각 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https://bit.ly/38jw7j1>

현대차 노사는 손 잡았는데...기아차 '정의행위 찬성' 파업수소 (중앙일보)

기아차 현직의 정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 3일 실시한 정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73.3%가 찬성에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2만9261명 중 2만6222명의 참여에 투표율은 89.6%. <https://bit.ly/2HWPdQb>

현대위아, ESG평가 통합 A등급 획득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통합 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향을 평가한 것으로, 최근 기업의 가치와 경영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https://bit.ly/2TUfCHM>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조사됨. 독일 뉘스보르크 소재 자동차연구기관인 오토모티브 리서치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교통사고 발생을 8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https://bit.ly/38idd29>

기아차 '美친 질주'...델라라이드 월 판매량 신기록 (서울경제)

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5만대를 넘기며 현대차와의 격차를 줄임. 기아차는 델라라이드와 K5 등을 내세워 매출 최대 판매량 기록을 경신하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음. 이 추세대로라면 형님격인 현대차를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옴. <https://bit.ly/368Qans>

만도,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4개사에 투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부품전문기업 만도는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4개사에 투자를 진행. 이번에 선발된 4개사는 만도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만도 테크플러스 시즌2'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https://bit.ly/3QzCwRQ>

우아한형제들 '배민 자율주행로봇이 음식배달'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실시간 자율주행로봇 배달 고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업체 HDC아이크로트스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인 '아파트단지에서 배달하는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 <https://bit.ly/32ba1KA>

전기차 충전하려면 30분 머물 공간 마련해야 주유소, 복합공간으로 바뀐다 (조선비즈)

주유소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지가 좋은 도심 주유소는 식당과 상점을 갖춘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나섬. 전기차는 운전자가 급속충전에서 80%까지만 충전한다고 해도 30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 <https://bit.ly/3epKf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